

2001. 4. 22 제8호

WFFIS Daily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WFFIS Daily

- 1 미도리
- 2 WFFIS News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폐막
결산 · 8일간의 축제
우리들의 밤
- 3 인터뷰
이혜경 집행위원장
강추 오늘의 영화
세상 끝에서
- 4 사진으로 본 여성영화제
여성문화운동의 장으로 자리매김
- 6 상처를 보듬는 여성들의 자매애 - 조지혜
여성영화제에 바란다
- 7 English Edition



■ 오늘의 영화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 1회(11:00)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2회(1:30) <마리의 이중생활>
3회(4:00) <새도우 박서> / <아넬리스의 커밍아웃>

하이퍼텍 나다

- 1회(11:00) <미도리>★
2회(1:30) <태양의 딸들>
3회(4:00) <세상 끝에서> / <꿈>
4회(6:30) <금지된 속삭임>

■ 오늘의 이벤트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오후 7:00 폐막식 - 폐막작 : <아시아 단편 경선수상작>

★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있습니다.

※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도리

In Search of a Lost Writer - Wandering in the Seventh World

일본/감독 하마노 사찌/1998/108분/35mm/컬러

<미도리>는 1971년 74세의 나이로 작고한 일본의 유명 작가 오사키 미도리를 다룬 영화다.

아시아의 시몬 드 보바르로 불리는 오사키 미도리의 작품은 최근에 와 서야 출간이 되었고,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몇몇 남성 비평가들과 연구가들에 의해 비극적인 천재 작가로만 평가되다 90년대 초부터는 그녀의 작품이 젠더와 섹슈얼리티, 여성연구, 모더니즘 연구 등의 맥락에서 재평가받고 있다.

영화는 오사키 미도리의 죽음에서 시작해 그녀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 간다. 또한 그녀의 소설 '7감의 세계에서의 방황'이 각색되어 그녀의 삶과 결부시킨 또 하나의 영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7감의 세계에서의 방황'은 7감(感)에 대한 시를 쓰고자 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로 몇몇 선견이 있는 독자들에 의해 걸작으로 인정받은 작품이다. 영화는 기억 상실에 대한 한 여성작가의 기나긴 투쟁을 그리고 있으며, 시종일관 잔잔한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SK Telecom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폐막

4월 22일 오후 7시 8일간의 영화제를 정리하는 폐막식이 동숭아트센터 동숭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인터넷 여성웹진 '줌마' 편집장 이숙경씨와 영화배우 추상미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폐막식은 이혜경 집행위원장의 영화제 폐막 선언과 함께 시작, 서울여성영화제 1·2회 단편경선 수상 감독들의 인터뷰 영상물 상영으로 이어진다.

이어 서울여성영화제의 하이라이트이자, 폐막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아시아단편경선 시상식이 이루어진다. 이번 경선은 지난 1·2회 때와 달리 한국 단편경선이 아닌 그 범위를 아시아로 확대, 더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으며, 총 17편(한국 12편, 외국 5편)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예선과 본선 심사위원 소개에 이어 니콜 페르난데즈 페레 심사위원장의 선정결과보고 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관객상 1편, 특별상(if상, 여성신문상)을 차례로 시상한다. 여성신문사에서 수여하는 여성신문상은 장희선 감독의 <재희 이야기>가 선정됐으며, 나머지 수상작은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폐막식은 수상작 앙코르상영으로 막을 내린다. 수상작이 모두 발표된 후 우수작 2편과 최우수작 순으로 상영될 예정. <고혜선>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결산

봄벌처럼 따사로왔던 8일간의 축제 아시아 여성문화운동의 지평을 한 차원 높인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슬로건 아래 지난 15일 시작된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가 22일 아시아단편경선 수상작 상영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프랑스 누벨바그의 거장 아녜스 바르다 특별전과 아시아 단편 경선, '아줌마' 관객을 위한 놀이방 운영 등 새로운 시도가 가미된 이번 영화제는 여성관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여성문화운동의 지평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영화제가 치러졌다는 점. 아녜스 바르다 감독을 흠모하던 영화학도들과 영화애호가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행복> <오페라 무페거리> <라 푸앵트 쿠르트로의 여행>이 모두 매진되었고, <세상 끝에서> <사망통지서> <가이아 겔즈> <부정한 관계> <내가 여자가 된 날> <태양의 딸들> <거류> <아시아단편경선> 등 많은 영화의 매진사례가 이어졌고 평균 관객점유율 95%, 연인원 2만여명의 관객이 영화제 현장을 찾았다.

특히 <역사수업>과 <누슈>는 이틀전부터 매진, 심야상영(<상실의 시대>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아넬리스의 커밍 아웃> <새도우 박서>)이 있었던 20일 밤에는 표를 구하지 못해 돌아간 이들이 속출했고, 영화제 막바지인 토요일에는 거의 모든 영화가 매진되었다.

각 대학에서 여성학과 영화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희망해왔고, 주몽재활원 영화동아리 회원들이 휠체어에 의지하여 상영장을 찾아 눈길을 끌기도. 또 각종 포럼과 부대행사에서 넘쳐나는 인파로 진행팀은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대만여성영화제와의 여성감독특별전 교류로 아시아 여성영화의 연대를 향한 첫 발을 디뎠다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성과다.

한편 이번 영화제에서 '욕의 티'라 할 수 있는 진행상의 실수와 준비 부족 등이 간간히 눈에 띄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여성운동가의 밤' 행사가 휠체어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마련돼 이날 초청인사였던 '장애여성공감'이 불참했던 것과 영화상영시 좌석정리가 미숙해 일부 관객이 불편함을 느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영미)

우리들의 밤

아시아 단편영화 및 비디오 경선부문에 출품한 여성감독들과 1, 2회 수상자, 심사위원단, 기성 영화감독들이 모여 영화제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우정을 나누는 '우리들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김애랑 여성정책관, 유인택 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장희선 감독(1, 2회 단편영화제 수상자), 정재은 감독(2회 단편영화제 대상 수상자), 니콜 페르난데즈 페레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이현승 감독, 후지오카 아사코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프로그래머, 텍사스워니 니란자나 인도 사회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변영주 감독과 영화제에 초청된 해외 감독과 관계자, 국내의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아시아단편경선에 참가한 국, 내외 감독들의 인사말과 작품소개로 시작된 우리들의 밤 행사는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는 이혜경 집행위원장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은 후 페미니스트가수 '지현'의 노래 'cut it out', '아저씨 싫어요', '마스터베이션', 그리고 앵골곡 'you've got it'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행사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아정>

